



[정치] 이재명 檢 소환 불출석 민주당 지원사격 06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10.02 (+6.34)	코스닥	779.46 (+8.03)
금리 (미국 3개월)	3.682 (+0.066)	환율 (원/달러)	1371.70 (+0.30) (6일)

‘IRA’ 대응책 못 찾은 현대차... 공장 증설 ‘발등의 불’

(인플레이션 감축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를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태풍 대응 철야’尹 대통령 “지반 약해진 상황 다 들여다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대한민국 남해안을 관통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며 심야 점검 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는 등 철야를 통해 태풍 피해 보고와 지시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른 아침 대통령실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태풍은 지금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갔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며 “오늘, 내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주민대피인데 적시에 이어지지 않으면 집단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두 번째로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통제, 그리고 여러 구조물 등 시설물의 안전과 산사태 방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군, 경찰 등 다 동원해 주민대피가 적시에 이뤄졌다”며 “지난달 집중호우가 있어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다 들여다 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 현장에 갈 생각인가’라고 묻자 “오늘 상황을 챙겨본 다음에 피해가 심각한 곳은 저하고 총리, 행안부 장관이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사건을 보고 받고 급하게 집무실로 이동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 25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해 태풍 이동 방향에 따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보조금 차별에 연비규제 강화로 현대차그룹,美시장 타격 불가피 정의선, 2주간 출장 마치고 귀국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앞당기고 조지아 공장 추가 증설방안 검토

국내 완성차 업계 만형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 판매량 감소에 따른 기업평균 연비규제 부담도 떠안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복잡한법 시행 요건으로 현대차그룹은 지금 당장 해법을 찾는데 실패한 모습이다.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현지 차량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이오닉 5 미국 판매가격은 3만 9950달러였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4만 7450달러로 오른다. 테슬라 모델3가 4만 6990달러로 이보다 비싸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경우 판매량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4%대에서 올해 상반기 9%대로 급등하며 2위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물론 1위 테슬라와 격차는 상당하지만 2위

에 이름을 올리면서 브랜드 인지도 확보는 물론 타 브랜드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미국 시장에 공들인 노력은 한 순간 무너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기존 내연차 생산공장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는데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비용도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결국 정의선 회장은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현지서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 조지아주 공장 착공을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내 착공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면 2024년 하반기엔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연산 30만대로 조기 완공한 뒤 2025년에 추가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길 뿐 아니라 해당 공장의 생산량도 더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강화된 연비 규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평균 1.5%로 대폭 낮춘 연비상향 목표를 다시 평균 8%로 올렸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연비규제 벌금을 기존 대당 5.5달러에서 15달러로 높였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전체 평균 연비를 계산해 연간 목표에 못미칠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판매도 동시에 늘려야 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에서 벗어난 6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가와 해안도로가 크게 파손됐다. /뉴시스



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당국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7명을 찾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전국 할퀸 ‘힌남노’... 2명 사망, 10명 실종 등 피해 속출

기장 신고리원전 1호기 멈추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7명 실종 토사매몰 등 총 13명 인명 피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는 과정에서 부산 기장 신고리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추는 등 각종 피해 접수가 잇따랐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관련기사 3면)

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신고리 1호기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정상 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터빈 발전기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터빈 발전기 정지 원인은 강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수원은 현재 상세 원인을 점검 중이다. 현재 79% 수준으로 운전 중이던 원자로 출력은 26% 정도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앞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고리 1~4호기와 월성 2호기가 동시에 정지됐었고,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는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 월성 2~3호기 등 8개의 핵발

전소에 고장이 발생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 바 있다.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도 속속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상자도 1명 발생해 총 13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경북도가 가장 컸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지자체 피해 접수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실종 신고가 잇따랐다. 포항남포소방서에 따

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아파트 1, 2차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46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서도 차량 이동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60대 여성이 연락이 두절돼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포항 70세 여성은 가족과 대피하다 실족해 사망했고, 경주 87세 여성은 집안으로 들어친 빗물과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3면에 계속)

/세종=한홍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박홍근, 이재명 압수수색에 “예상, 전면 대응할 수밖에” /사진 뉴시스
▲ 새 비대위 D-2... 與, 박주선·나경원 등 ‘주호영 대안’ 찾기 부심

▲ 용혜인 “윤석열 정부 들어섰다고 기본 소득 끝난 게 아냐”
▲ 일시적 2주택자 등 중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 중국 쓰촨 6.8지진... 외교부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사진 뉴시스
▲ 권영세 “北 핵개발·젊은층 무관심에 통일정책 도전 직면”